

딸은 맨부커상 수상 아버지는 등단 50주년

<한강>

<한승원>

2016년 광주·전남 문화계 결산

3 문화

조정래 '태백산맥' 출간 30주년 청소년판 발간
광주 계간 시전문지 '시와 사람' 창간 20돌 맞아
전남대 개최 '한책 읽기' 성과... 송수권 시인 별세



한강



한승원

올해 문학계의 빅 뉴스는 단연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46)의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 수상 소식이었다. 맨부커상 선정위원회가 지난 5월에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올해의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발표하면서 작가 한강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불린다. 책을 번역한 영국인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29)도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소감에서 한강 작가는 "책을 쓰는 것은 내 질문에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때로는 고통스러웠고 힘들기도 했지만 가능한 한 계속해서 질문 안에 머물고자 했다"며 "나의 질문을 공유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맨부커상 수상으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의 인기는 국내 서점가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졌다. 세계 주요 국가에 판권이 팔릴 만큼 세계 문학출판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과 아울러 작가의 여섯 번째 장편 '소년이 온다'가 광주의 5월을 다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소설 또한 큰 주목을 받았다.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도 큰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의 부친이 문단 원로인 한승원 작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자들과의 관심을 끌었다. 한승원 작가에게 올해는 딸의 세계적 문학상 수상뿐 아니라 자신에게는 등단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였다.

한국문단의 거목이자 한국 작가들의 스승이기도 한 그는 그동안 30여 편의 장편과 80여 편의 중단편, 6권의 시집, 10권의 산문집을 펴낸 만큼 성실한 집필활동을 해왔다. 등단 50주년을 맞아 펴낸 50주년 자전 중단

편집 '아만과 신화'는 그 자체로 한국문학의 역사이자 자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단 50주년을 기념하는 대담집 '꽃과 바다'와 장편소설 '달개비밥 엄마'를 펴내 문인들의 부러움을 샀다. '꽃과 바다'는 소설가이자 세계일보 문학담당기자인 조용호 씨와 평론가 장일구 전남대 교수가 직접 한 작가를 인터뷰해 그의 문학 인생과 글쓰기에 대한 철학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이다.

올해는 작가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발간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소설은 최초 1986년 10월 1~3권 출간을 시작으로 1989년 10월 8~10권이 나오면서 완간됐다. 현재까지 850만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간 3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청소년판이 새롭게 발간돼 화제를 모았다. 도서출판 해냄이 펴낸 '태백산맥' 청소년판은 원작과 역사적 사실 등 구조는 같지만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다듬었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지난해 대하소설 '아리랑'을 청소년판으로 쓴 조호성 작가가 개작을 맡았다.

광주에서 발행되는 시전문지 계간 '시와사람'은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난 7월에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광주정신을 잇고 호남정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자 5·18민중항쟁 16주기인 1996년 5월 18일 창간한 '시와사람'은 호남에 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문학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년 동안 50여명의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인을 배출해 우리 시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시와사람'의 평가로 주목받는다.

전남대가 올해 4번째 추진한 '시민과 함께하는 한책 읽기'는 독서운동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받았다. '2016 한책'에는 김훈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가 선정됐다. 지난 9월에 개최된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작가 김 훈이 강사로 나서 '말하기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콘서트에는 400여 청중이 몰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스타일리스트인 김훈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문흥독서사랑, Book 소리, 빛고을독서회, 낙서반 등 각급 학교와 시민들의 독서모임 회원들도 다수 참여해 책을 매개로 유익한 시간을 나눴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남도 서정시를 대표하는 고흥 출신 송수권 시인이 지난 4월에 별세했다. 1940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고인은 순천사범학교와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75년 '문학사상'에 시 '산문에 기대어'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순천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출간 30주년 기념 '태백산맥'



계간 시전문지 '시와 사람'



전남대가 지난 9월에 개최한 작가 초청 한책 콘서트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훈 작가.



가재무늬 궤 뚜껑



철화무늬 희준

흙으로 빛은 조선의 제기 '예술이네'

국립광주박물관 4월 2일까지 특별전

국립광주박물관이 2017년 4월2일까지 특별전 '흙으로 빛은 조선의 제기'를 중근세문화실에서 연다.

제기 재료는 금속 등 다양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금속이 부족해 주로 도자가 애용됐다. 이후 도자 제기는 '예(禮)'를 상징하는 도구이자 예술품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15세기 전후에 제작된 '황금눈(黃目) 구름무늬 준(尊·술이나 물을 담은 그릇) 모양 제기' 등 14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출품작들은 제작 형태에 따라 크게 세 시기(15~16세기, 16~17세기, 18~19세기)로 나뉜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교 문화가 보급되고 확대되면서 사용 계층이 왕실에서부터 점차 향교, 사대부가, 민가까지 저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 '광주 충효동에서 분청제기가 생산되다'에서는 무등산 북쪽 기슭에 위치한 광주 충효동 가마터에서 출토된 제기를 소개한다. 충효동 제기는 조선 왕실에서 크고 작은 의례에 사용했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변개, 꽃, 물결, 넝쿨무늬와 게나 가재 등 독특한 문양이 특징이다.

제2부 '제기도설(祭器圖說)의 금속 제기를 본뜨다'에서는 15~16세기에 조선 왕실과 관청이 제기



물무늬 뿔잔

도설의 내용을 따라 제작한 도자 제기 대해 살펴본다. 조선 초에 제작된 삼강분청사기 제기는 금속 제기처럼 세밀하게 장식된 것이 특징이다.

제3부 '독창적인 백자 제기로 바뀌다'는 16~17세기에 만들어진 독창적인 백자 제기를 소개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사가 성행하면서 도자는 점점 장식성이 생략되고 추상적인 면모를 갖는다.

마지막 제4부 '가장 조선다운 백자 제기를 완성하다'에서는 가장 조선다운 백자 제기가 완성되는 18~19세기 제기를 살펴보는 자리다. 또한 마지막 코너에서는 제사 절차에 따라 사용된 도자 제기 영상을 상영하며 전시 이해를 돕는다. 문의 062-570-703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제3기 이사회 출범

이사 12명·감사 1명 공모 선임

광주문화재단이 첫 공개모집을 거쳐 선임한 제3기 이사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날 비상임 선임직 이사 12명과 감사 1명으로 이사회를 꾸렸다. 이사 임기는 2019년 12월까지 3년. 광주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1, 2차 공모를 거쳐 모두 28명의 입원 후보자를 접수받았다. 추천위원회는 응모자 전원을 광주시에 추천했고 이 가운데 광주시장이 이사 12인과 감사 1인을 최종 확정했다. 이사들은 광주문화재단 임원으로 활동하며 사

업계획·예산 심의,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정관 등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등 핵심적인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다음은 이사·감사 명단.

▲이사=김 성 전 국회의원 비서실장, 김종남 인재육성아카데미 운영위원장, 김하림 조선대 교수, 박광석 전 광주시 문화예술진흥과장, 박현택 (주)영무토건 대표이사, 송진희 호남대 교수, 안태기 광주대 교수, 윤만식 한국민족극운동협의회 이사장, 임해철 호남신학대 교수, 전명옥 서예가, 정혜경 송원대 명예교수, 최영숙 현대병원장 ▲감사=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성 변호사.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광식·양계남·김재일·허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하·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기간: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최초 CC, JNJ, 영광CC, 아크로, 화순엘리트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트, 제주, 고창
레저 이용혜택!!

영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신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텔,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우자유로 18(치평동 890-12) ☎ (062) 371-1800 · 010-6270-1879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